

“열대야 없는 태백에서 ‘은하수 투어’를 즐기세요”



평균 해발고도 902.2m인 도시가 있다. 서울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 해발 고도는 555m이다. 북한산 정상도 836.5m이다. 이보다 높은 곳이 바로 고원 도시 강원 태백이다. 무더위로 잠 못 드는 한여름에도 에어컨 없이 숙면할 수 있는 곳으로 연평균 기온은 9.3℃, 연중 가장 더운 7~8월의 평균기온도 23.3℃다. 고원 기후 특성은 바로 열대야 없는 여름이다. 이토록 시원한 여름, 그리고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떠나는 ‘은하수 투어’는 감동일 수밖에 없다. 일 년 중 은하수를 보기에 가장 좋은 계절로 밤 9시 무렵이면 은하의 중심부가 드러난다. 은하의 중심부는 가장 많은 별이 모여있는 곳이다. 선명하게 우뚝 솟은 은하수를 감상할 수 있다. 지난해부터 태백시는 은하수가 잘 보이는 명소 7곳(핫스팟)을 선정해 은하수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. 핫스팟은 함백산 은하수길, 오투리조트, 스포츠파크, 오로라파크, 탄탄파크, 구문소, 태백산 당골광장이다. 모두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해 편하게 차량에서 쏟아지는 은하수를 감상할 수 있다. 은하수 투어를 확실히 즐기려면, 시에서 제작한 ‘은하수 여권’을 가지고 각 스포트를 다니며 은하수를 감상하고 스탬프를 찍어 인증하면 된다. 모든 스포트의 스탬프를 다 찍고 완주 인증을 하면 기념품 마그넷까지 받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. 스포트 중 가장 은하수를 보기 좋은 곳은 ‘함백산 은하수길’이다. 일출, 드라이브 명소일 뿐 아니라, 은하수 명소인 셈이다.

앞서 시는 빛을 쬐는 광부 사진 작가로 잘 알려진 전제훈 작가와 함께 하는 은하수 여행을 지난 7월 진행했다. 작가가 들려주는 은하수 사진 이야기부터 은하수 사진 촬영 방법, 그리고 작은 음악회, 은하수 사진 전시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. ⑦



1 태백시 선정 은하수 감상 핫스팟인 ‘함백산 기원단’
2 태백산 3 오로라파크



3

열대야 없는 태백, 은하수 투어!



무더위로 잠 못 드는 여름,
에어컨 없이 숙면할 수 있는 태백에서 은하수 투어를 즐기세요!

